

1) 언어학적(연결문맥적co-textual) 접근방법

Jakobson과 Catford가 언어학적 이론의 전형적 주창자이다. Jakobson(²1966, 233)에 의하면 번역과정 설정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원어와 역어 간의 구조적 일탈을 극복하는 작업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 차등개념은 번역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언어학의 본질적 관심사이다. 역사적 발전의 특수성 때문에 모든 개별 언어(자연어)는 어휘적, 통사적, 관용적 그리고 사회-문화적 특성을 지닌다. 번역가는 두 언어의 기호체계가 다르지만 원어텍스트를 등가의 역어텍스트로 번역해야 하는데 번역가가 채택한 방법은 텍스트유형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언어의 구조적 차이는 인식의 영역에서 가장 잘 해소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언어상의 보편성이 동시에 또한 인식적 보편성이기 때문이다. 특히 문학작품은 언어학적 방법만으로 번역등가를 설정할 수 없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결론은 시는 번역할 수 없으며 창조적 전위만이 가능하다.

Catford(1965, 27)는 형식적 대응과는 반대되는 개념의 텍스트적 등가개념을 도입했는데 그에 의하면 거시텍스트적 번역등가macrotextual translation equivalence²⁹⁾는 미시텍스트적 번역등가microtextual translation equivalence의 집합이다. 그는 원어텍스트와 역어텍스트를 비교해서 설정되는 텍스트적 등가와 그 기저가 되는 번역등가의 조건을 구별했는데 이러한 조건은 상황적situational이다.³⁰⁾ 그는 번역과정의 상황적 조건을 특히 중시했는데 그 이유는 의미는 개별언어 특유의 현상이며 보편적 현상이 아니므로 의미의 등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지시적 등가만이 존재한다. 즉 원어텍스트는 원어의미를 가지며 역어텍스트는 역어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러나 의미는 유사한 간언어적인 다시 말해서 원어텍스트 단위와 역어텍스트 단위가 주어진 상황에서 교체될 수 있다면 그것은 서로 등가관계에 있다는 뜻이다. 그의 이론은 번역방법과 번역기술의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시발점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이 바로 언어쌍과 관련된 번역학의 기술적 및 실용적 양상이다.

2) 커뮤니케이션적 접근방법

Nida와 Kade는 이러한 방법의 대표적 주창자이다. Nida(1964, 176)에 따르면 언어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상으로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언어학적 발화는 수신인 지향적이어야 한다. 원어의 의사소통 의도, 역어의 문체론적 규범, 역어독자의 기호해독 능력 등을 고려함으로써 원어텍스트에 대한 가장 근접한 자연적 등가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번역등가는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Kade(1968)의 방법은 한층 더 추상적이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번역과정은 잠재적 등가관계의 체계를 형성하는 원어와 역어의 구조적 관계에 의해서 통제된다. Kade에 의하면 어떤 번역과정에서나 의미론적 등가는 최고의 우선권을 가진다.

29) 거시적 텍스트등가는 절과 문장의 영역을 초월한 언어단위 즉 텍스트를 의미한다.

30) 이러한 상황적 조건은 텍스트의 언어구조에 반영된다(ibid. 35).

즉 번역등가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내용면에서 1:1의 대응관계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의미상의 불변성이 번역등가의 최우선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모든 언어는 각각 특유의 구조를 지니고 있으므로 간언어적 동형은 대체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휘적, 통사체적 그리고 통사적 1:1의 대응관계와 더불어 또한 간언어적 1:0, 1:부분, 1:다수, 반대로 0:1, 부분:1, 그리고 다수:1의 복잡성의 정도가 다른 대응관계가 존재한다.

요약컨대 모든 잠재적 번역등가 관계는 네 범주 즉 총체적total, 최적의optimal, 대략적(부분적)approximative 그리고 영의zero 번역등가로 수렴된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주지해야 할 사실은 번역학과 대비언어학의 차이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비언어학의 주목적은 비교점을 토대로 둘 또는 그 이상 언어의 모든 계층을 서로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데 있는데 이것은 외국어교육과 사전편찬을 위해서 매우 유용하다. 대비언어학에서 언어비교의 목적은 서로 일치하거나 상이한 체계를 비교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비교는 랑그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번역학의 목적은 빠를차원에서 정확한 텍스트를 생성하는 데 있다.

3) 번역학적 접근방법

Neubert(1968)는 번역등가에 관한 번역학적 연구를 수행했는데 그에 따르면 텍스트 번역가능성의 정도가 번역등가의 척도가 된다. 이러한 견해는 번역되어질 텍스트의 번역가능성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가설에 근거한다. 그러나 어떤 유형의 텍스트와 번역가능성 정도, 그리고 그에 대응해서 그 번역등가 사이의 연관관계는 언제나 그가 의도했던 것과 같이 단순하지는 않다. 모든 번역가들은 상대적으로 번역하기 어렵다고 간주되는 텍스트가 가장 잘 번역할 수 있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으며 가장 잘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텍스트는 의외로 번역하기에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러한 번역등가의 불균형은 의미론적 그리고 문체론적 요인에 의해서 야기된다. 불균형의 정도는 다음의 의미론적 잉여번역overtranslation과 손실번역undertranslation, 문체론적 잉여번역과 손실번역의 네 번역등가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된다.³¹⁾

	잉 여 번 역	손 실 번 역
내 용		
문 체		

문학작품 특히 희곡이나 운문, 언어유희 등의 번역은 난해하며 또한 번역가 자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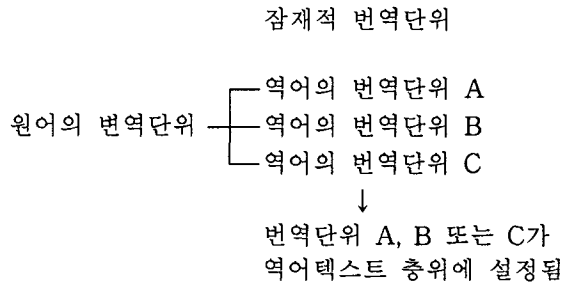
31) 문학작품과는 대조적으로 과학적 텍스트의 번역등가 설정은 대체로 단순한 편이다.

창조적, 분석적, 해석학적 및 연상적 능력에 따른 주관적 판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상대적으로 객관적이거나 주관적 번역등가 기준의 양극 사이에 위치하지만 그 위치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는 번역등가도 비교적 폭넓게 존재한다. 그 실례로서 다음을 들 수 있는데 이 경우 어느 정도 표층구조상의 변화가 예상된다:

Fresh paint!	Frisch gestrichen!	(칠 주의!)
Fasten seat-belts!	Bitte anschallen!	(안전벨트를 매시오!)

The patient is as well as can be expected in the circumstances.
 Dem patienten geht es den Umständen entsprechend gut.
 (환자는 상황에 알맞게 잘 조치되었다.)

번역등가를 설정하는 데 필수적이고 또한 문제시되는 것은 번역단위이다. Kade (1968, 90)에 의하면 번역단위는 내용면 즉 정보량에서 불변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원어텍스트의 분절단위에 대응하는 역어텍스트의 분절단위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 어느 텍스트를 완전히 번역단위로 분절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문제가 야기된다. 번역과정은 역어의 번역단위에 상응하는 번역단위를 설정하기 위한 분석과정과 이러한 역어의 번역단위에 의거해서 역어텍스트를 생성하는 종합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³²⁾ 물론 이것은 원어와 역어 사이에 성립된 잠재적 등가관계의 가설에 기초한다 (Koller 1979, 116):



이러한 번역단위 설정에 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 방법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이론적 연구가 수행되지는 않았지만 단어나 문장이 한 번역단위로서 적

32) 이러한 번역과정의 모델은 변형생성문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개되었다. 여기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엄격한 형식적-통사적 기술이 아니고 원어문장(원어의 표층구조)을 번역을 위해서 직감적으로 한층 더 단순한 구조로 분석한 문장형식이다. 이러한 원어의 단순한 구조는 다시 단순한 역어의 구조로 옮겨지고 마지막으로 역어텍스트로 번역된다(Nida 1969, 484).

합하지 않다는 데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

Vinay/Darbanelnet²(1971, 37)는 번역단위를 의미단위 *unité de pensée*로 규정했다. 의미단위란 기호결합이 분리되어서 번역되어서는 안되는 발화의 가장 작은 분절을 뜻한다. 이러한 정의는 원어중심적이다. 번역단위는 원어에서 의미단위로 나타나는 데 역어구조와는 무관하다. 그러므로 역어의 의미단위가 원어의 단위와 다르게 구성되었다면 번역단위 설정은 매우 어렵게 된다. 번역단위 설정과정에서 결정적 요인은 역어의 잠재적 등가와 관련되는 언표의 내용이다. 따라서 어느 정도 크기의 어느 언어단위가 번역단위인가를 설정하는 작업은 처음부터 확정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임을 알 수 있다. Koller(1979, 117f)는 단위의 크기에 따라 번역단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했다:

1) 번역단위가 단어이다(학술용어의 경우):

독어 Umsatzvolumen - 프랑스어 volume de ventes

독어 Stromkreis - 영어 electric circuit

2) 번역단위가 통사체이다:

(1) 학술용어의 경우

영어 data processing - 독일어 Datenverarbeitung

영어 fast-breeder reactor - 독일어 Schneller Brüter

(2) 관용어적 표현의 경우

독일어 blinder Passagier - 영어 stowaway - 프랑스어 passager clandestin

독일어 zugrunde gehen - 프랑스어 périr, mourir

프랑스어 auteur d'un attentat - 독일어 Attentäter

독일어 zum Ausdruck bringen/kommen - 프랑스어 exprimer - 이태리어 esprimere

(3) 어법상 표현의 경우

독일어 ins Gras beißen - 영어 kick the bucket

독일어 bei jemandem ins Fettnäpfchen treten - 프랑스어 mettre les pieds dans le plat - 영어 put ones foot in it

프랑스어 mettre la charrue devant les boeufs - 독일어 das Pferd am Schwanz aufzäumen

(4) 미사여구의 경우

독일어 es liegt mir am Herzen, zu... - 영어 I am particularly anxious to...

독일어 am Rande bemerkt; nebenbei gesagt; - 영어 let it be said in passing that...

- 프랑스어 soit dit en passant; pour le dire entre parenthèses

3) 번역의 단위가 문장이다:

(1) 속담의 경우

영어 No fool like an old fool. - 독일어 Alter schützt vor Torheit nicht.

이태리어 *Lontan dagli occhi, lontan dol cuore.* - 독일어 *Aus den Augen, aus dem Sinn.*

- 4) 번역단위가 텍스트(텍스트의 일부)이다.
 (1) 시적 텍스트의 경우³³⁾
 (2) 광고텍스트의 경우³⁴⁾

LE DERNIER S. T. DUPONT
 N'EST PAS UN BRIQUET!
 C'est un stylo
 En argent massif. Ou en vermeil:
 l'or semble avoir une lumière plus
 chaude quand il recouvre l'argent.
 De la laque de Chine véritable
 décore, si vous le voulez, l'agrafe.
 Le stylo S. T. Dupont a la dou-
 ceur, la finition que, seules, peuvent
 apporter ces matières précieuses.
 S. T. Dupont
 ORFÈVRES A PARIS

THE LATEST S. T. DUPONT
 IS NOT A LIGHTER.
 It is a pen. Like no other.
 It does not exist in chrome. It does
 not exist in steel. It is made only
 in solid silver or authentic vermeil.
 Some models are even decorated
 with genuine Chinese lacquer.
 This is why the S. T. Dupont
 pen possesses the feel and the
 craftsmanship that belong only to
 precious materials. S. T. Dupont
 has created pen. And another
 necessity has become a luxury.
 S. T. Dupont
 ORFÈVRES A PARIS

일반적으로 1) 언어간 구조상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³⁵⁾, 2) 텍스트의 문체론적-미학
 적 특징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3) 번역가가 언어학적-문체론적 관점에서 의도된 독
 자층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번역단위는 더 커진다. 요약컨대 번역단위는 언어내적
 요인이 아니라 역어의 구조를 고려해서 결정된다. 예컨대 영어의 *white horse*(백마)는
 두 단위이지만 독일어의 *Schimmel*은 한 단어로, 그러나 불어는 *cheval blanc*으로 역
 시 두 단위로 성립되었다(Diller/Kornelius 1978, 20). 번역등가는 다음 예에서와 같이
 추상적일 수도 있다(ibid. 20f):

독일어 *Ein Wald von prächtigen Buchen nahm ihn auf.*

- 33) 이러한 경우에 텍스트의 시적 특성이 언어유희나 의성어에 의해서 표현되는데 여기에서는
 내용의 재현이 문제되지 않고 언어형식의 재구성이 중요시된다.
 34) 영어와 불어의 불펜 광고텍스트를 비교하였다. 이러한 광고텍스트에서는 구매호소력이 가장
 증시되는데 구매전략, 고객심리에 따라서 두 언어의 텍스트가 다르게 실현되었다.
 35) 두 언어간의 구조가 유사하면 유사할수록(예를 들면 노르웨이어와 스웨덴어) 번역단위는
 점점더 작아진다.

영어 He entered a forest of magnificent beeches.

독일어의 구성은 NP_{nom}[-animate]+Verb_{R1}+NP_{akk}[+animate]인데 이에 반해서 영어의 구성은 NP_{nom}[+animate]+Verb_{R2}+NP_{akk}[-animate]이다.³⁶⁾ 물론 두 통사적 구성은 상호 간 등가관계에 있다. 문체론적 관점에서 볼 때 영어에서는 한 문장내에서 사람-사물-추상개념의 명사가 나타날 때 문장의 주어가 되어야하는 위계순서는 사람-사물-추상 개념이다. 따라서 독일어의 목적어 ihn이 영어에서는 주어 he가 되었다(Friederich⁵1985, 65f).

Ⅲ. 텍스트언어학과 번역이론

최근 빠를중심의 언어학에서 텍스트는 언어적 표현의 기본형이며 다양한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생성된다. 번역가는 개별적 어휘나 문장³⁷⁾이 아니라 텍스트를 번역단위로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번역은 텍스트중심이어야 한다. 번역은 기록된 원어텍스트에서 최적의 역어텍스트의 등가를 창출하는 과정이므로 번역가는 물론 원문의 구문론, 의미론, 문체론과 텍스트화용론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Wilss 1982, 112). 전통적 번역이론에서는 텍스트유형과 번역방법 사이의 유기적 관계를 무시하고³⁸⁾ 번역될 텍스트와 번역방법 간의 상호의존성만이 중시되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이나 문학 작품의 번역이 그 당시 번역의 주된 대상이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에 상응하여 직역과 의역의 규범적 번역방법에 관한 문제가 번역이론의 핵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대량의 정보교환, 특히 과학과 기술분야에 관한 문헌번역의 필요성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텍스트언어학 즉 텍스트유형과 번역방법에 관한 문제가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또 한편 전통적으로 원어텍스트중심의 번역방법이 중시되어 원문은 영원하고 번역문은 시대에 따른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작가, 원어텍스트, 번역가, 역어텍스트, 역어텍스트의 독자 등에 관한 모든 기능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번역방법이 등장했다.³⁹⁾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Nida의 커뮤니케이션적 번역방법이 M. Heidegger의 번역에 관한 시각translational perspective과 같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Kelly(1979, 226f)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텍스트언어학의 중심과제는 텍스트종류Textsorte의 언어학적 구분을 위해서 상이한

36) 지표 R1과 R2는 의미상으로는 일치하지만 역의 관계에 있음을 표시한다.

37) 개별적 문장이 텍스트의 지위를 가질 경우는 물론이고 고립된 문장도 역시 번역의 대상이다.

38) Jerome과 Schleiermacher는 이미 텍스트유형과 번역방법 사이의 유기적 상호 의존관계를 중요시했다.

39) 최근에는 특히 문학작품 번역에서 역어중심 번역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텍스트구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다. 예컨대 텍스트의 일반적 상황구속성 Situationsgebundenheit으로부터 그 상황에 특수한 텍스트의 생성모형을 설정하는 작업이 텍스트언어학의 목적이다. 번역학자들은 특정의 번역원칙을 도출해낼 수 있는 텍스트유형 분류에 관심을 둔다. 두 분야의 학문은 오랫동안 독립적으로 연구되었으며 최근에서야 다른 분야의 연구결과를 상호간 원용했다.

텍스트언어학은 텍스트응집력은 물론 텍스트종류의 텍스트내적 및 텍스트외적 표지에 관한 기술방법을 발전시켰는데 이것들의 대조적 비교는 번역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언급한다면 1970년대 언어학자들은 문장의 경계를 초월하는 구조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 결과 텍스트언어학이 정립되었다. Nida의 성경번역 이래로 번역학자들은 단어나 문장의 번역이 아니라 총체적 텍스트의 번역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⁴⁰⁾ 그는 번역의 전제조건으로 텍스트분석을 주장했는데 그 결과 텍스트언어학적 방법이 번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기호학에 기반을 둔 텍스트언어학에서는 텍스트가 복합적 언어기호로 간주된다. 텍스트는 언어학적 방법으로 기술하고 설명하고 분류할 수 있는 텍스트외적 및 텍스트내적 표지를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표지의 도움으로 텍스트종류를 분류할 수 있다. 경험상으로 상이한 텍스트는 번역과정에서 다르게 취급되는데 여기에 텍스트유형과 번역방법과의 관계 즉 번역학과 텍스트언어학의 관계가 성립된다.⁴¹⁾

언어학적 번역학은 텍스트생성을 모델화하여 기술할 수 있다는 가설에 토대를 둔다. 텍스트차원에서 통사적 구조에 관한 고찰은 번역과정에서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응집력있는 텍스트의 내부구조는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이다(Harweg, 1968을 참조). 텍스트분석의 중요한 요인은 문장시작, 문장끝, 문장열거 등을 알리는 부호, 상반적, 부가적, 양보적, 인과율의 시간적 화법을 나타내는 어휘, 접속사의 종류 등이다. 텍스트의 응집성은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언어학적으로 기술될 수 있으며 이것들이 또한 번역과 텍스트언어학과의 연관관계를 지닌다(Hönig/Kussmaul 1982, 10ff).⁴²⁾ 요약컨대 번역과정에서는 어휘의 번역이 아니라 텍스트가 번역되어야 한다. 텍스트는 텍스트내적(언어적) 수단뿐만 아니라 텍스트외적(언어외적) 수단의 도움으로 생성된다. 번역의 어려움이 바로 여기에 있으며 최

40) 번역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Nida의 성서번역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성경을 내용상의 변화없이 여러 언어로 번역하려고 했을 때 그는 언어외적 문제 즉 문화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41) 텍스트언어학에서는 주로 텍스트종류 Textsorte라고 지칭하는데 반해서 번역학에서는 텍스트 유형 texttyp라고 부른다.

42) Nida는 통사체의 내재적 의미를 중시한 반면에 Hönig/Kussmaul은 문장요소간의 논리적 관계에 관해서 연구했다. 텍스트언어학과 번역과의 상호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1970년 이후부터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이전에도 이러한 연구는 물론 지속되었다.

적의 번역을 하기 위해서 텍스트언어학의 도움이 역시 필요하게 된다.

다음으로 텍스트언어학과 번역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간단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텍스트차원에서 번역의 필요성을 주장한 선구자로서 Hieronymus(348~420), Vives(1492~1540), 그리고 Schreiermacher(1768~1834) 등을 들 수 있다:

1) Hieronymus는 현대적 의미에서 텍스트를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통용어텍스트(gentilium litterarum libri)와 성서텍스트(divina scriptura)로 양분했다(Kloepfer 1967, 29). 그는 전자의 경우에 의미Sinn를 다른 의미sensum exprimere du sensu로, 후자의 경우에는 한 단어를 다른 단어(verbum e verbo)로 번역했다(Hieronymus(Störig 1963, 1-13). 이러한 그의 번역방법은 텍스트유형을 토대로 한 번역방법의 단초로 간주된다.

2) Vives는 Cicero와 Hieronymus의 이론을 토대로 텍스트유형에 기초한 한층 더 구체적인 번역이론을 발전시켰다. Vives는 번역방법을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이러한 방법은 물론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또한 번역의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Coseriu 1970, 572f). 세 종류의 번역방법은 (1) 텍스트의 의미(Sinn)만 고려되는 방법인데 이러한 유형의 텍스트에서는 정보전달이 주목적이고, (2) 텍스트의 형식(표현방식)이 중시되는 방법에서는 의미보다는 언어의 형식적 표현방법이 중요하며, (3) 텍스트의 의미는 물론 형식이 고려되어야 하는 방법에서는 텍스트의 의미와 형식이 모두 번역문에 보존되어야 한다(Wilss 1981, 29).

3) Schleiermacher는 다음과 같이 텍스트를 두 유형으로 구분했다:

- (1) 간주간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파악된 사태관계를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가 매체 역할을 하는 텍스트(신문기사, 기행문 등)
- (2) 개별어적으로 제한된 언어형식이 이전된 내용과 함께 한층 더 고차원의 통일체를 형성하는 텍스트(문학작품, 학문분야의 서적)

그에 의하면 (1)에 속하는 텍스트는 통역Dolmestzen의 대상이고, (2)에 속하는 텍스트는 번역Übersetzen의 대상이다. 주지해야 할 사실은 그가 번역의 대상인 예술작품 텍스트의 번역에는 모사Nachbildung적 방법, 그리고 학문이나 철학적 텍스트의 번역에는 의역Paraphrase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고대 희랍시대 수사학의 연구대상으로서 언어학의 중심과제였던 텍스트는 최근 또 다시 언어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구조주의언어학자들도 텍스트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예를 들면 프라그학파는 테마-레마의 구별을 통한 기능적 문장투시법 funktionale Satzperspektive을 발전시켰고 코펜하겐학파는 문장을 텍스트의 구성요소로 간주했으며, K. Pike 중심의 문법소론학Tagmemics의 학자들은 Bloomfield의 이론에 반하여 텍스트문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Gülich/Raible 1977, 60ff).

텍스트언어학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P. Hartmann, R. Harweg, H. Weinrich, T.

van Dijk, K. Heger, W. Dressler, R. de Beaugrande 등의 소위 독일학파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텍스트유형과 번역과의 관계 역시 Koller, Reiss, Vermeer, Paepcke, Stolze 등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연구되었다. 번역텍스트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텍스트언어학에서와 같이 텍스트유형을 구분하고 그 유형에 맞는 번역방법을 설정하는 것은 실제 번역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텍스트언어학에서는 텍스트종류의 특성, 기술가능성 및 기술방법 등과 관련된 텍스트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가 중심과제인 반면에 번역의 조건과 가능성에 관한 고찰이 주요 연구대상인 번역학의 관심분야는 텍스트종류의 분류와 연관되는 대략적이고 추상적인 텍스트의 구별, 즉 텍스트유형Texttyp의 분류이다(Reiss/Vermeer 1984, 204).⁴³⁾

번역학은 번역되어야 할 또는 이미 번역된 텍스트를 취급하기 때문에 원문텍스트가 번역텍스트의 문화권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는가를 결정하기 전에 번역물로서 원문텍스트가 그 문화권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관해서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번역과 관련되는 언어의 텍스트유형은 Reiss(1971, 33)에 의해서 제시되었는데 그녀는 Bühler(²1965)의 언어 오르가논모형Organon-Modell der Sprache에 의거해서 텍스트를 내용을 강조하는 텍스트유형, 형식을 강조하는 텍스트유형, 그리고 호소를 강조하는 텍스트유형으로 분류했다.⁴⁴⁾ Reiss의 텍스트유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내용을 강조하는 정보텍스트유형informativer Texttyp은 내용을 증시하는 모든 텍스트종류인데 Bühler의 서술기능Darstellungsfunktion에 해당된다(신문기사, 보고서, 논문, 해설서, 문서사용설명서, 실용서 등).

2) 형식을 증시하는 표현적 텍스트유형expressiver Texttyp은 언어적 표현기능을 강조하는 텍스트종류인데 Bühler의 표현기능Ausdrucksfunktion에 해당된다(문학작품, 자서전 등).

3) 호소를 강조하는 기동적 텍스트유형operativer Texttyp은 호소와 선전을 나타내는 모든 텍스트종류인데 Bühler의 호소기능Apellfunktion에 해당된다(광고, 선전, 설교문, 논박서, 풍자 등).

위의 사항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ibid.):

43) 텍스트종류와 텍스트유형의 개념은 번역학에서는 텍스트언어학에서와는 달리 경쟁관계에 있지 않고 동일한 현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텍스트언어학에서는 텍스트유형보다는 텍스트종류라는 개념이 우위성을 지니고 있다.

44) Reiss가 나중에 첨가한 네번째 텍스트유형으로 청각매체텍스트는 언어외적 표현수단이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언어기능	—	서술	—	표현	—	호소
언어차원	—	논리적	—	미학적	—	대화적
텍스트유형	—	내용강조	—	형식강조	—	호소강조

모든 저자(텍스트의 집필자)들은 그들이 텍스트를 완성하기 전에 위에 열거한 모든 문화권에 존재해야 할 세 가지 의사소통상의 기본형식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텍스트유형⁴⁵⁾이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이다(Reiss/Vermeer 1984, 206). Reiss(1971, 54)에 의하면 텍스트유형은 개별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번역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텍스트유형과 관련되는 번역방법은 원어 번역단위의 등가를 역어에서 찾는 작업인데 이 과정에서 텍스트의 기능은 보존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1) 내용을 중시하는 텍스트는 텍스트에 내재된 정보량이 손실없이 역어 독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2) 형식을 중시하는 표현적 텍스트 즉 문학작품의 번역에서는 원어텍스트에 나타난 형식적 요인이 역어텍스트에서도 표현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원어텍스트의 예술성을 역어텍스트의 독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3) 기동적 텍스트의 번역에서는 원어텍스트에 의해서 야기된 것과 동일한 행동자극 Verhaltensimpuls을 역어텍스트의 수신자들에게 일으켜야 한다. 번역가는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하여 원문텍스트와 역문텍스트의 기능이 서로 동일하게 되도록 번역하여야 한다(Reiss 1976, 23). 따라서 텍스트유형에 따른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이한 번역방법이 설정된다(Stolze 1994, 109):

1) 정보를 중시하는 텍스트유형의 특성은 사물이나 사태관계를 기술하는 데 있기 때문에 내용상의 불변성을 보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번역방법은 순수한 산문적 schlicht-prosaisch이어야 한다.

2) 표현적 텍스트유형의 특성은 발신인중심적 즉 개인의 예술적 창조성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다시 말해서 예술적 조형의 유추에 있기 때문에 번역방법은 동일성을 확인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3) 기동적 텍스트유형의 특성은 행위자극에 있기 때문에 텍스트에 내재된 호소의 정체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적응적 adaptierend 번역방법이 사용된다.

45) 텍스트유형은 우선적으로 기능에 따라 분류되었으며 언어학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는 않았다.

또 한편 위에서 논의한 세 텍스트유형에 관한 번역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중심 텍스트번역의 목적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전달의 불변성에 있다. 이러한 텍스트는 정보내용의 번역에 충실해야 하며 또한 여기에서는 내용상의 수정도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역어중심의 텍스트를 생성해야 한다.

2) 표현적 텍스트번역의 목적은 의미상의 불변성은 물론 보전되어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의식적이나 무의식적으로 작가가 사용한 언어의 형식적 요소에 의해서 생성된 특별한 미적 작용을 역어의 독자들에게 일으키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내용을 강조하는 텍스트유형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원어중심의 텍스트가 생성되어야 한다.

3) 기동적 텍스트번역의 목적은 역어텍스트의 청자 또는 독자에게 의도된 행위를 권장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텍스트유형의 특성은 행위중심적이기 때문에 역어텍스트에 기동적 작용가능성이 보전되어야 한다.

R. Roberts(1988, 124f)는 Reiss와는 무관하게 Nida의 이론을 토대로 텍스트에서 의미meaning와 전언message를 구분했다. 의미는 구조적, 텍스트적 의미로 성립되며 텍스트에서 단어, 문장 그리고 텍스트계층에서의 의미론적 차원인데 이에 반해서 전언은 텍스트에서 독자에게 중요한 의미양태Bedeutungsaspekt이며 이것은 작가, 독자 그리고 텍스트의 언어외적 상황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컨대 어떤 텍스트에서 특정의 상황적 특성Stuationsmerkmal이 지배적 역할을 한다면 이것은 표현적 텍스트 즉 문학작품이다. Roberts 역시 텍스트를 의사소통의 표현기능, 의사소통의 정보기능 그리고 명령기능을 강조하는 세 유형으로 분류했다.

Roberts(ibid. 120ff)는 W. Auden 시의 두 다른 번역을 예로 들어, 독자 혹은 번역가가 텍스트에 나타난 의미적 특성Bedeutungsmerkmal을 선택적으로 인지한다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같은 텍스트를 어떤 사람은 표현적 텍스트로, 다른 사람은 정보적 텍스트로 인지한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Where Are You Going?

'O where are you going?' said reader to rider,
 'That valley is fatal when furnaces burn,
 Yonder's the midden whose odours will madden,
 That gap is the grave where the tall return.'

'O do you imagine,' said fearer to farer,
 'That dusk will delay on your path to the pass,
 Your dillgent looking discover the lacking

Your footsteps feel from granite to grass?’

‘O what was that bird,’ said horror to hearer,
 ‘Did you see that shape in the twisted trees?
 Behind you swirtly the figure comes softly.
 The spot on your skin is a shocking disease.’

‘Out of this house’ - said rider to reader,
 ‘Yours never will’ - said farer to fearer,
 ‘They’re looking for you’ - said hearer to horror,
 As he left them there, as he left them there.

원문에서 ‘rider’라는 단어는 ‘farer’와 ‘hearer’와 같이 능동성의 양태를 포함하고 있다. 질문을 하는 ‘reader’, ‘fearer’, ‘horror’(문장의 종속성분Aktant)는 정적이다. 다수의 두운법은 문체론상의 특성이다.

Annie Brisset의 번역

“Où vas-tu donc?”	Dit Lecteur à Lutteur,
“Ce val est fatal	Quand les brasiers brûlent,
Le fumier s’y empile	Empeste et affole,
Ce trou est la tombe	Où glissent les grands.”
“O sais-tu donc”	Dit Penseur à Passeur,
“Que la nuit freinant	Ta course vers le col
à ton regard vif	Le vide masquera,
par tes pieds foulé	De la pierre au pré?”
“Quel était cet oiseau?”	Dit Horreur à Oreille,
“As-tu vu la forme	Dans les arbres tors?
Furtive, la silhouette	En silence te suit,
La tâche sur la peau	Est un mal, un scandale.”
“Loin du logis” -	Dit Lutteur à Lecteur,
“Jamais pour toi” -	Dit Passeur à Penseur,
“C’est toi qu’ils cherchent”	Dit Oreille à Horreur,
En les quittant là,	En les quittant là.

Jean Lambert의 번역

“Où vas-tu donc? dit le lecteur au cavalier,
 La vallée est mortelle quand les fourneaux brûlent,

Le fumier s'y entasse et ses odeurs affolent,
Ce trou est une tombe où reviennent les forts”.

“Et crois-tu donc, dit le craintif au voyageur,
Que tu vas atteindre le col avant la brune,
Que ton oeil diligent va découvrir le vide
Reconnu par tes pieds entre l'herbe et la pierre?”

“Quel était cet oiseau? dit l'horreur à l'oreille,
As-tu vu cette forme dans les arbres tors?
Cette ombre te poursuit, silencieuse et rapide,
La tache sur ta peau est un mal scandaleux”.

“Va-t-en d'ici”, dit le cavalier au lecteur.
“Les tiens jamais”, dit le voyageur au craintif.
“Ils ne cherchent que toi”, l'oreille à l'horreur.
Comme il les laissait là, comme il les laissait là.

번역본에서 ‘rider’가 ‘luteur’와 ‘cavalier’로 번역되었는데 이것은 번역가가 이 단어를 보다 더 표현적으로 또는 보다 더 정보적으로 파악했는지를 알려주는 번역가 자신의 수용에 대한 본질적 경향 즉 번역가의 태도를 드러낸다. Lambert 번역에서는 음성적 두운법의 문체론적 의미뿐만 아니라 문장의 종속성분에 관한 내포적 관계가 결여되어 있다.

Koller(1992, 272ff)는 그의 *Einführung in die Übersetzungswissenschaft*번역학 입문(수정판)에서 Reiss의 텍스트유형과는 다르게 번역과 관련된 텍스트장르Textgattung를 가상적 텍스트Fiktivtext와 사실적 텍스트Sachtext로 구별했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분류는 텍스트유형상 이상적 구분이며 두 중심장르는 커뮤니케이션적, 언어학적 및 문학적-미학적 범주에 의해서 세분된다. 또 한편 그는 허구적 텍스트와 사실적 텍스트는 점진적일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수용미학적 의미에서 번역가에게서 특정의 번역등가에 관한 요구를 기대하는 독자의 행위에 토대를 둔다. 그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문학작품은 허구적 텍스트에 속한다. 또 한편으로 그는 사실적 텍스트를 다음과 같은 세 범주로 구분했다(ibid, 274f):

- 1) 주로 일반언어적 성격을 가졌고 일차적으로 비전문적 의사소통에 기여하는 사실적 텍스트(실용텍스트)
- 2) 일반언어적 및 전문어적 특성을 지니며 비전문가의, 부분적으로는 전문가의 의사소통에 기여하는 사실적 텍스트(넓은 의미에서 통속과학적 텍스트)

3) 특별히 전문어적 성격을 띤 언어로서 전문가들간에 사용되는 사실적 텍스트(학문적 텍스트)

주지해야 할 사실은 그가 텍스트를 분류하는 데 다음과 같은 네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1) 사회적 인가 및 실용적 결과의 기준 : 문학작품 번역의 경우 텍스트의 변경은 독자들의 실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적 텍스트에서는 그렇지 않다. 만일 사실적 텍스트가 정확한가 또는 부정확하거나 허위적인가에 따라 사회적으로 영향을 준다(ibid. 276).

2) 예술작품 허구성의 기준 : 이와는 반대로 문학작품 텍스트에 나타난 어떤 변칙은 의도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정정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사항을 수정한다면 그것은 독자를 후견하는 원문텍스트의 교정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ibid. 279). 사실적 텍스트에서는 지시적 등가를 가장 중시하지만 문학작품 텍스트에서는 내포적konnotativ 등가가 우선적이다.

3) 심미성Ästhetizität의 기준 : 문학적 텍스트는 미학적 양태를 고려해서 수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언어적-문체론적 형식의 일탈은 문체론적 수단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번역가에게는 이러한 언어실험을 James Joyce의 작품 Ulysses의 경우에서와 같이 실제로 체험해야 하는 필연성이 요구된다(ibid. 281). 문학적 텍스트의 잠재적 다양성 역시 심미성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사실적 텍스트에서는 심미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변칙적 언어사용은 용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실적 텍스트의 번역가는 관용적으로 당해텍스트 범주에 유효한 표현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사실적 텍스트의 번역을 위해서는 문체론적 충족성이 통례적으로 요구될 뿐이다(ibid. 286). 여기에서 문법적 정확성과 더불어 명확한 표현방법이 가장 중시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원문의 교정도 요구된다.

4) 언어내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텍스트내적 의미의 기준 : 여기에서는 허구적 텍스트와 사실적 텍스트 간의 차이는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언어내적 의미는 음성적, 자소론적, 형태론적, 어휘론적 유사성의 토대 위에서 언어내적 연합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번역과정에서 시적 특성의 보전을 대체로 지시대상Denotat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하게 작용한다(ibid. 287f). 사회문화적 의미는 문화적 특성을 지니며 텍스트내에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의미의 중개는 주석의 형식으로만 이루어진다(ibid. 290). 문학적 텍스트를 문학적 텍스트세계에 삽입하는 간텍스트적 의미는 다른(자신의 또 다른 사람의) 텍스트에 대한 상이한 (함축적 또는 명시적) 내용상의 또는 형식적 기술Technik을 통해서 표현된다(ibid. 291). 이러한 경우 번역은 거의 불가능하다.

위에서 Reiss, Roberts 그리고 Koller의 번역과 관련되는 텍스트유형에 관해서 논의했다. 텍스트유형에 관한 본질적 연구는 Reiss(1971)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도되었으며 현재 그녀의 이론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권위있는 이론으로 간주된다. Lakoff가 *Categories and Cognitive Models*(1988, 2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적 범주화의 이론은 범주의 다양한 이론뿐만 아니라 상이한 세계관과도 관련된다. 예컨대 범주화는 심상, 기억력, 사회적 기능, 인간의도, 조형인식력 등 객관적 특성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Reiss가 제시한 텍스트유형은 Kade의 등가유형과 같이 명확히 구분되는 체계다. 그녀의 텍스트유형은 텍스트를 범주화하고 번역방법을 설정하는 기본적 척도가 된다. 그녀에 의하면 표현적 텍스트에서 은유는 역어에서도 은유로 번역되어야 하지만 정보적 텍스트에서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같은 원칙이 관용어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스페인어의 관용구 “*miente más que el gobierno*”는 독일어로 정보적 텍스트에서는 “*er lügt allzuviel*”(그는 거짓말을 아주 잘한다)로, 그러나 표현적 텍스트에서는 독일어 관용구인 “*er lügt wie gedrückt*”(그는 거짓말을 판에 박은 듯이 한다)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 일반화의 방법은 너무나 극단적일 뿐만 아니라 너무 완고하다. 대부분의 텍스트는 실제로 혼합적 형식이며 때로는 서로 배타적 요소를 동반하는 다차원적 구조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Shakespeare의 소네트에는 그 당시의 학술용어가 포함되어 있고 반면에 현재 경제학 텍스트에는 은유적 표현이 나타나며 광고(호소를 강조하는 텍스트)에도 정보를 전달하는 등 여러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Bühler의 모델은 물론 번역이론을 위해서 많은 가능성을 제공했으나 Reiss가 제시한 텍스트유형의 객관적 범주의 기준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Bühler의 모델 그 자체가 명확한 객관적 근거에 의거해서 설정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실제의 복잡다양한 텍스트번역에 Reiss의 이론 역시 고전적 범주화이론의 결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언어의 구체적 실현이 정적이고 명확한 범주의 체계로 환원될 수 없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Snell-Hornby(1988, 31)에 의하면 객관론자나 환원론자의 전통적인 엄격한 유형론은 동적이고 계슈탈트적 관련체계의 원형유형론 prototypology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번역과 관련된 Reiss의 세 텍스트유형중의 어느 하나도 실제 텍스트에서 순수하고 이상적인 형식으로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텍스트를 어느 유형에 정확히 귀속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물론 그녀 자신도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Gerzymisch-Arbogast는 경험적 연구를 통해서 특정의 텍스트유형에 어떤 양태Aspekt⁴⁶⁾가 내재되어 있는지를 역으로 고찰했다. 예를 들면 실용텍스트Sachtext의 특성 즉 양태는 위계질서적 정보구성Informationsgliederung이다. 이러한 개별적 텍

46) Gerzymisch-Arbogast는 텍스트에 나타나는 특성을 양태Aspekt라고 지칭했다. 동사의 상을 나타내는 용어와 중복이 되지만 번역학에서 Aspekt는 양태라는 말로 번역하여 동사의 상과 다르게 사용된다.

트의 양태를 근거로 해서 텍스트의 특성을 기술할 수 있으며 또 한편 여기에서 텍스트유형을 추출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동일한 테마 즉 Heidelberg에 관한 세 개의 텍스트⁴⁷⁾는 그 텍스트에 나타난 양태를 통해서 분석될 수 있다. 여기에서 주지해야 할 사항은 어떻게 텍스트 기능이 구체적 텍스트에 표현되는지 즉 어떤 텍스트에 내재된 양태를 통해서 텍스트 기능을 언어상으로(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가를 입증하는 작업이다.

다음에 세 유형의 텍스트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그 안에 내재된 양태를 분석하여 텍스트유형을 추출하고자 한다(Gerzymisch-Arbogast, 1994, 38-44를 참조):

[텍스트1]

Heidelberg: city, Baden-Württemberg Land (state), southwestern West Germany, on the canalized Neckar River where it emerges from the forested hills of Odenwald into the Rhine plain. First mentioned in 1196, it was the capital of the Palatinate (Pfalz) until 1685 and the residence of the counts and then the electors Palatine until 1720. It was devastated during the Thirty Years' War (1622) and almost completely destroyed by the French in 1689 and 1693, so that most of its important buildings are in the Baroque architectural style (which prevailed until the late 18th century) rather than Gothic medieval. It passed to Baden in 1802 and experienced considerable growth in the 20th century....

(주제는 밑줄을 쳐서 표시함)

텍스트1은 *Encyclopedia Britannica*(1976)에 게재된 Heidelberg에 관한 항목이다. 이 텍스트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정보전달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텍스트는 Reiss가 언급한 바와 같이 우선적으로 서술적 기능을 가진다. 텍스트1의 특성 즉 양태를 정확히 기술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모든 지식 예컨대 어휘론적-의미론적 그리고 백과사전적-메타언어적 지식에 의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정한 유형의 양태를 찾아서 텍스트에 나타나는 특정의 현상을 가능한 한 뚜렷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작업인데 (Muderbach 1991, 329) 이러한 기술된 양태를 특성에 따라 체계화해야 하며 이렇게 추출된 양태는 번역텍스트에 표현되어야 한다. Gerzymisch-Arbogast는 6개 양태를 설정하

47) 이들 세 개의 텍스트는 Reiss에 이해서 분류된 텍스트의 세 유형이다.

고 텍스트1의 양태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1 텍스트의 주제Titel은 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 텍스트의 축소된 내용(Dressler 1973, 18)으로 간주된다.

1.2 어휘Lexik는 중립적, 즉 무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텍스트에 나타나는 어휘는 특성이 없으며 다만 소수의 형용사가 포함되었을 뿐 은유, 단어유희, 암시 등을 나타내는 어휘는 이 텍스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1.3 수동태구성과 긴 문장 때문에 구문Syntax의 특성은 복합적인 것으로 표시된다.

1.4 이러한 기본적인 세 양태(주제, 어휘, 구문) 이외에 다른 양태는 예컨대 정보량 Informationsdichte⁴⁸⁾이다. 정보를 독자들에게 새로운 사태관계Sachverhalt를 설명하는 한 단위로 본다면 텍스트1에서 4개의 Heidelberg에 관한 문장에 모두 26개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it(Heidelberg의 대응어) was the capital of the Palatinate(Pfalz) until 1685 and the residence of the counts and then the electors Palatine until 1720...”는 3단위의 정보(정보량)를 제공한다. 텍스트1에서는 한 문장이 평균적으로 6개의 정보를 지니고 있다.

1.5 정보량과 더불어 정보구성⁴⁹⁾ 또한 텍스트전개의 특징이다. 텍스트1에서는 대응어 it(=Heidelberg)가 주어의 위치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구문형식은 실용텍스트의 전형적 전개방식이다. 주제가 결정되면 이것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전개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조롭고 변화가 없는 전개방법은 독자들에게 지루한 느낌을 준다. 대체로 이러한 텍스트는 한 번에 텍스트 전체가 아니고 소항목의 정보에 따라 부분적으로 읽혀진다.

1.6 또다른 양태로서 저자Autor-독자Leser-관계Verhältnis를 들 수 있다. 저자가 직접 자기 이야기를 하는지 즉 텍스트에 저자 자신에 관련된 요소가 있는지, 또는 수신인(독자)에게 직접 이야기 하는지, 텍스트가 메타커뮤니케이션적 요소를 통해 상호작용적인지, 또는 통합적인지에 관한 사항 등이다. 텍스트1의 특징을 개관해 본다면 저자나 독자와 관련되거나 상호작용적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텍스트는 사물과 관련되는 언표 즉 실용텍스트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텍스트1의 특징을 위에서 언급한 6개의 양태 즉 주제, 어휘, 구문, 정보량, 정보구성과 저자-독자-관계를 토대로 구체화할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6개의 양태를 텍스트2와 텍스트3에 획일적으로 적용해보면 이중 어느 양태가 서로 일치하고 또 어느 양태가 상호간 체계적으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8) 정보량이란 어느 한 문장내에 포함된 정보의 수이다.

49) 정보구성이란 정확히 말해서 불변의 지속적 주제의 전개Progression(Daneš 1970, 76)를 지칭하는데 이것은 주제(여기에서는 Heidelberg)가 텍스트에 어떠한 방법으로 구성되었는가를 의미한다.

[텍스트2]

But as to Heidelberg: The weather was growing pretty warm - very warm, in fact. So we left the valley and took quarters at the Schloss Hotel on the hill above the Castle.

Heidelberg lies at the mouth of a narrow gorge - a gorge the shape of a shepherd's crook. If one looks up it he perceives that it is about straight for a mile and a half, then makes a sharp curve to the right and disappears. This gorge - along whose bottom pours the swift Neckar - is confined between (or cloven through) a couple of long, steep ridges, a thousand feet high and densely wooded clear to their summits, with the exception of one section which has been shaved and put under cultivation. These ridges are chopped off at the mouth of the gorge and form two bold and conspicuous headland, with Heidelberg nestling between them. From their bases spreads away the vast dim expanse of the Rhine valley, and into the expanse the Neckar goes wandering in shining curves and is presently lost to view.

Now if one turns and looks up the gorge once more he will see the Schloss Hotel on the right, perched on a precipice overlooking the Neckar - a precipice which is so sumptuously cushioned and draped with foliage that no glimpse of the rock appears. The building seems very airily situated. It has the appearance of being on a shelf half-way up the wooded mountainside and as it is remote and isolated and very white it makes a strong mark against the lofty leafy rampart at its back.

(주제는 밑줄을 쳐서 표시함)

2.1 주제는 역시 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서 이 텍스트의 축소된 해의로 간주되며 표현적 요소를 지니고 있지 않다. 이 경우에 Reiss 유형론의 증첩에 관한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주제의 사실관련성이 표현적 텍스트에서도 역시 나타난다는 사실은 주제의 사실관련성이 어떤 특정 텍스트유형에 대한 어떤 의무적(구성적) 표적이